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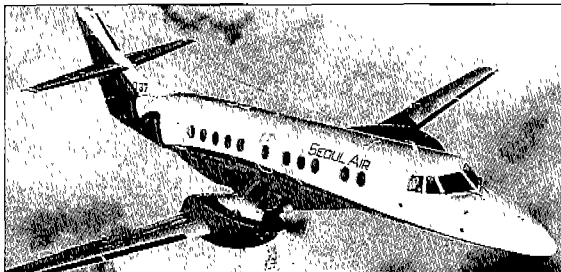
아시아나, A321 도입... 총 18대 규모

아시아나 항공이 최근 유럽의 에어버스사와 중단거리용 항공기인 A321기 18대를 도입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동사는 그동안 미국의 보잉(Boeing) 기종만을 보유했으나 이번 계약에 따라 에어버스 항공기를 처음으로 도입, 운항하게 됐다. 이 항공기는 '98년 2사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아시아나 항공의 주요 국내선 및 일부 국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항공, 베트남노선 변경... BAe사의 항공기 회수

서울항공(Seoul Air International)은 재정난으로 터보프롭기의 운항을 중단하고, 대부분의 항공기를 임대자인 브리티쉬 에어로스페이스(BAe)사에 반환하였다.

동사는 '95년 초에 Jetstream Aircraft사로부터 2대의



서울항공의 Jetstream41은 BAe사에 반환되었다

ATP기와 1대의 Jetstream41기를 구입하였고, 2대의 중고 Jetstream3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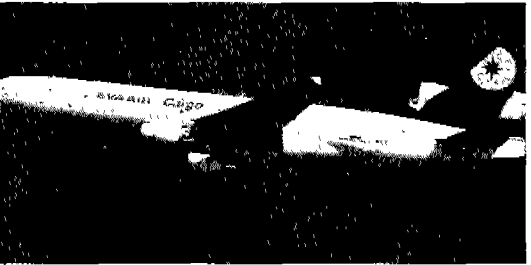
도 캐나다로부터 인수하였다.

동사는 국내에 주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의도였으나, 이러한 계획은 국내 운항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얻는데 실패함에 따라 무산되었다. 그 결과 동항공사 항공기들은 주로 베트남에서 전세기로 임대되었다.

한편, 동사는 현재 커뮤터기와 헬기등 남아있는 8대의 항공기로 베트남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루프트한자, USAir MD-11, -95기 주문

미국의 맥도넬더글라스사(MDC)는 USAir사와 대량의 MD-95 쌍발제트기에 대한 최종 협상에 들어갔다. 그 규모는 주



화물기는 이미 다른 항공사에 의해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사와의 약10억불 규모의 MD-12F 화물기 11대의 계약에 박차를 가하는 역할을 하였다.

만약 동 계약이 성사된다면, 새로운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있는 MDC사에게는 중대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USAir사는 40대의 MD-95기와 비슷한 크기의 Forker100기를 보유하고 있다.

루프트한자사의 MD-11F기 주문은 5대의 1차 주문과 7대의 옵션을 포함하고 있는데, 동 항공기들은 '70년대 동사가 사들인 DC-10기 이후 최초의 MDC사의 항공기가 된다.

현재, MD-11기에 대한 주문은 총180대에 달하고 154대가 이미 인도되어 이제는 전세계 항공수송기 시장에서 보편적인 화물기가 되고 있다.

보잉-GE사 에어프랑스의 777기 계약을 위해 노력

미국의 보잉(Boeing)사와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GE90-



에어프랑스는 장거리 여객운항수를 늘릴 계획이다

100B 엔진을 장착한 777-300기종의 첫 번째 커스터머로 에어프랑스를 겨냥하고 있다.

보잉사는 에어프랑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커스터머임을 확인했으나 임박한 계약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에어프랑스도 동사가 777기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다른 장거리기종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에어프랑스의 777기 계약은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 국가소유의 동 그룹은 에어버스사의 가장 큰 항공기 커스터머중의 하나로 이미 130대의 주문을 에어버스사와 맺었다.

동 항공기의 첫 인도는 '99년 7월에 가능하다. 동사는 '99년 3월부터 인도받기로한 7대의 GE CF6-80엔진을 장착한 767-300ER기의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은 777기와 교환이 가능하다. 보잉사는 '95년에 개발을 시작한 이후로 GE엔진 장착 -300기종의 인도를 '99년 중반으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프랑스는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항공사, MD-90 구매압력받아

중국북방항공(Shenzhen Airlines)은 보잉 항공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대신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조된 5기의 맥도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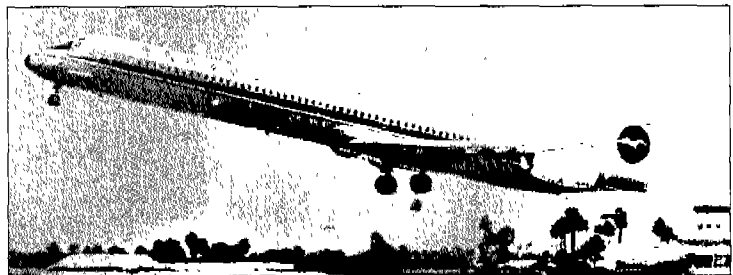
클라스(MDC)사의 MD-90 30기를 사도록 중국의 민간항공국(CAAC)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동 항공사에 따르면, 상하이 에이비에이션 인더스트리알(SAIC)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 5기의 MD-90기를 사도록 중국 당국에 의해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CAAC는 이것을 부인하면서 Shenzhen은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항공사는 5기의 보잉 737-300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11월에 1대, '97년에는 두 대를 더 인도를 받을 예정이다. 동 항공사는 운영과 관리를 단순화시키고 모든 항공기를 보잉기로 하기 위해 매우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항공사들은 SAIC사가 조립한 MD-80기를 사도록 압력 받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해 왔다.

MDC는 이것은 중국의 항공사들과 AVIC(Aviation Industries of China)간의 내부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Shenzhen은 MD-90을 원하지 않는다